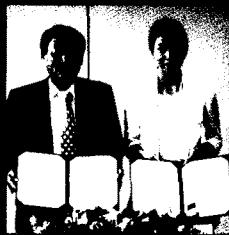


Photonics Mov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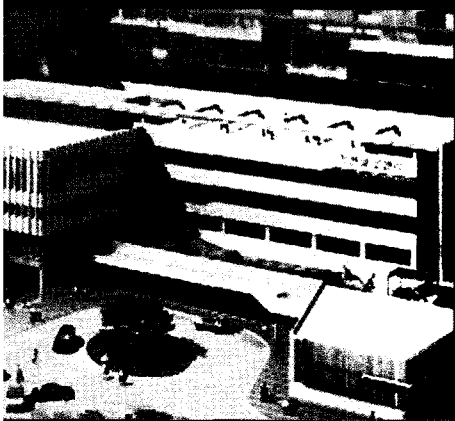
광산업동정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현대통신(주)간의 LED조명 및 홈네트워크 산업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



광주TP,
가전로봇센터 기공식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현대통신(주)간의 LED조명
및 홈네트워크 산업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현대통신(주)간의 LED조명 및 홈네트워크 산업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허영호, LG이노텍 대표이사)는 지난 6월 16일(수) 한국광산업진흥회 3층 회의실에서 LED조명 및 홈 네트워크 전문기업인 현대통신(주)(대표이사 이내훈)과 LED조명 및 홈 네트워크 산업의 새로운 제품 패러다임 마련을 위해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인 현대통신(주)는 홈네트워크 업계의 선두기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LED조명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최근 자사에서 생산하는 LED조명 제품에 대한 KS인증을 완료하고 LED산업분야에 본격적인 투자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현대통신(주)은 그동안 자사의 경쟁력 확보 분야인 홈네트워크 시장과 연계하여 한국광산업진흥회 LED분야 중소기업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LED조명 신시장 발굴 및 선점, LED조명 및 홈 네트워크 분야 사업화 과제와 제품 공동 개발, 미래유망 제품 및 비즈니스 모델 공동 발굴, LED조명분야 국내·외 공공 및 민간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현대통신(주)는 이번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국내 LED 조명 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국내 LED 시장의 확대 및 일반 사용자들에게 LED조명의 보급을 확산하고 녹색성장 산업의 발전과 기후변화협약에 일조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 극대화 등 LED 조명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TP, 가전로봇센터 기공식

생활가전을 첨단 로봇기술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가전로봇 산업으로 육성할 광주테크노파크(TP) 가전로봇센터 기공식이 5월 27일 열렸다.

기공식에는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김재균 민주당 의원,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광주TP원장 남현일은 지식경제부의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 일환으로 총 282억원을 투입해 테크노파크 부지 1만 6,500㎡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이날 착공에 들어가 내년 5월까지 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센터(센터장 조연술)는 기업제품 전시관, 시제품 개발 및 제작실, 시험계측 장비실, 창업보육공간 등을 갖춘데 이어 50여개 관련 기업을 유치해 가전로봇 분야 특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 최대 가전로봇 산업의 생산·기술 메카'를 목표로 백색가전산업의 메카인 광주 지역업체를 중심으로 가전로봇 부품 중 센서·모터·광·제어 분야의 핵심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유관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로봇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해 기술개발 협력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조연술 센터장은 "광주는 광산업분야인 통신·제어·LED·카메라모듈 등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향후 가전로봇분야의 세계적인 집적화 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10년 후에는 가전로봇이 광주를 상징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